

## 오리온, 초코파이·포카칩 여름 한정판 출시

오리온이 초코파이와 포카칩의 여름 한정판을 내놓았다. 초코파이 수박은 마시멜로에 수박 과즙을 넣고, 초코칩으로 수박씨를 구현했다. 겉은 수박을 연상시키는 껍질 무늬로 코팅하고, 속은 붉은색 빵으로 수박 과육을 표현했다. 포카칩 홀라랑고맛과 라임모히또맛에는 각각 하와이에서 즐기는 달콤한 망고주스와 물디브를 떠올리게 하는 라임모히또를 담았다.



## 쌍용차 최종인수에정자 확정

# 쌍용차, KG그룹 품으로...경영정상화 앞당긴다

KG컨소시엄, 9500억에 최종 인수 광림은 자금증빙·투자 확보 못해 토레스 사전계약 2만5000대 넘어 “추가모델도 차질 없이 개발할 것”



쌍용차가 KG그룹을 새로운 주인으로 맞으면서 경영정상화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쌍용차가 최근 선보인 신차 토레스는 사전 예약 첫날 1만2000대가 예약되며, 쌍용차의 실적 개선에 청신호를 쬐다. 사진제공 | 쌍용차

쌍용자동차 최종 인수 예정자로 KG그룹의 KG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법원장, 이동식 나상훈 부장판사)는 매각공고 전 인수예정자였던 KG 컨소시엄을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공개입찰 절차에서 광림 컨소시엄이 참여했는데, 인수 대금의 규모와 인수 대금 조달의 확실성, 운영 자금 확보 계획, 인수자의 재무 건전성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광림 컨소시엄의 인수 내용이 기존 KG 컨소시엄의 인수 내용보다 불리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쌍용차는 매각대금을 제때 내지 못한 에디슨모터스와의 투자계약을 해제한 후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재매각을 진행해왔다. 스톱호스는 우선 인수예정자와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한 뒤 공개입찰 절차를 따로 진행해 인수자를 확정하는 방식이다.

쌍용자동차와 매각주간사인 EY한영회계법인은 지난 5월18일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공고 전 인수예정자로 KG컨소시엄을 선정하고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

결한 뒤 공개입찰 절차를 밟아왔다. 쌍용차 측은 인수 대금 규모와 인수 이후 운영자금 확보계획, 고용보장 기간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KG 컨소시엄은 특수목적법인(SPC)인 KG모빌리티, KG ETS, KG스틸, KG이니시스, KG모빌리언스 및 쉐커스 PE, 파빌리언 PE로 구성됐다.

공개입찰에서는 9일 쌍방을그룹 계열사로 구성된 광림컨소시엄이 인수의향서를 제출하고, 이후 인수 금액이 적힌 공식 인수 제안서까지 제출하면서 KG 컨소시엄과 마지막까지 경쟁을 펼쳤다.

광림컨소시엄은 스톱호스 입찰 당시 KG그룹(3355억 원)보다 많은 약 3800억 원을 인수대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 증빙과 재무적 투자

자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인수예정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쌍방을그룹은 300억 원을 더 높게 써냈으면서도 우선 인수예정자로 선정되지 못하자, KG그룹과 파빌리언PE가 막판에 컨소시엄을 구성한 것은 입찰 담합이라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인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각하됐다. 광림컨소시엄은 이후 공개입찰에서 자금 증빙을 했지만, 쌍용차 측은 KG그룹보다 더 유리한 인수 조건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KG컨소시엄은 인수대금 3500억 원과 운영자금 6000억 원을 포함해 총 9500억 원 가량을 내고 쌍용차를 인수하게 된다.

KG컨소시엄이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

정됨에 따라 쌍용자동차는 기 체결된 조건부 투자계약을 바탕으로 회생계획안을 작성해 7월 말 이전에 법원에 제출하고, 채권자 및 주주들의 동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8월 말 또는 9월 초에 진행할 예정이다.

쌍용자동차 정용원 관리인은 “최종 인수예정자가 선정됨에 따라 경영정상화를 위한 조석이 마련되었다”며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입장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으나,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의 투자계약에 비해 인수금액이 증가하고 인수자 요구 지분율이 낮아짐으로써 결과적으로 회생채권에 대한 실질 변제율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고, 특히 공익채권 변제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회생채권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양해와 협력을 당부했다.

이어 “신차 토레스의 사전계약 대수가 지난 27일 기준 이미 2만5000대가 넘어섰다”며, “이번 M&A가 성공적으로 완료된다면 토레스의 성공을 토대로 향후 전기차 등 추가모델 개발을 차질 없이 수행함으로써 경영 정상화를 앞당겨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KG그룹(막재선 회장)은 국내 최초 비료회사인 경기화학(현 KG케미칼)이 모태다. 이니시스(현 KG이니시스), KFC 코리아, 동부제철(현 KG스틸) 등을 인수하며 성장했다. 현재 KG케미칼과 KG스틸, KG ETS, KG이니시스, KG모빌리언스 등 국내 5개 상장사와 16개의 비상장사를 거느리고 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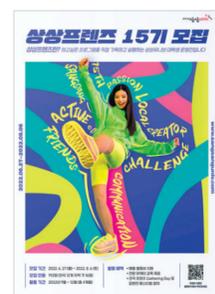
## 11번가, 60대 이상 겨냥 라이브방송 시차



11번가는 60대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한 예능형 라이브방송 코너 ‘할렉스’(사진)를 새롭게 시작한다. 할머니와 할아버지에 ‘플렉스’를 합친 단어로, 자신을 꾸미고 가꾸는 데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는 60대 이상의 시니어 계층을 타겟으로 한다.

소개될 주요 품목은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프리미엄 여행상품 등이다. 쇼호스트도 60대 배우를 섭외한다. 예능형 요소를 극대화하는 ‘아들딸에게 쓰는 영상편지’, ‘맛갈 사연 전화연결’ 등 이벤트도 마련한다. 11번가 관계자는 “시니어 고객에게는 공감대와 향수를 자극해 ‘자발적 플렉스’를, 3040대에게는 부모님을 위한 ‘효도선물 플렉스’를 유도하는 콘텐트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 KT&G, 대학생 ‘상상프렌즈’ 15기 모집



KT&G(사장 백복인)가 대학생 종합커뮤니티인 ‘상상유니브’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대학생 운영진 ‘상상프렌즈 15기’를 모집(사진)한다.

8월6일까지 상상유니브 홈페이지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국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최종 선발된 192명은 9월부터 4개월간 상상유니브를 대표하는 ‘상상프렌즈 15기’로 활동하게 된다.

‘상상프렌즈 15기’로 선발된 대학생들은 각 지역에 적합한 문화·예술·봉사 등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며, 프로그램 홍보에 필요한 SNS콘텐츠와 홍보 영상도 제작한다. 매월 일정 금액의 활동비가 지원되며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필요한 전문 교육도 제공된다.

양형모 기자

## 건강 올레길 | 우리동네 주치의의 건강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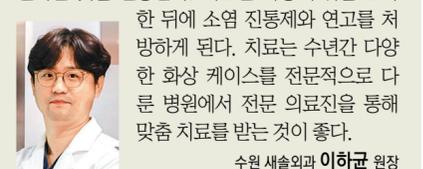
### 뜨거운 태양빛으로 인한 ‘햇빛화상’ 아이들 특히 주의...맞춤치료 받아야

여름을 맞아 뜨거운 태양빛으로 인한 햇빛화상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전체 화상 환자 중 햇빛화상(일광화상) 환자 비중은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많다.

햇빛화상(일광화상)은 자외선에 과도하게 노출되었을 때 피부에 염증반응이 유발되면서 홍반이 나타나 따갑고 화끈거리는 물집이 발생하는 단계로 이어진다. 심하면 물집이 생긴 후에 표피가 벗겨진다. 통증, 부종, 물집 등이 일반적인 증상이나 경우에 따라 쇼크, 오한, 발열, 구역질 등 전신적 증상이 함께 나타나기도 한다. 보통 햇빛에 노출된 후 72시간이 지나면 증상이 가장 심하게 나타난다.

햇빛화상은 아이들이 어른에 비해 화상 정도와 흉터가 심하다. 따라서 아이들은 외출 시 모자나 긴 소매옷을 입혀 햇빛 노출을 줄여주는 것이 좋다. 햇빛화상은 과도한 자외선에 의해 표피층이 손상되는 1도 화상이나 2도(표재성) 화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피부층 손상 정도에 비해 환자가 느끼는 통증이 강하고 화상 범위가 넓다.

물놀이 후나 여행지에서 돌아온 후에 피부에 붉은 반점이 나타나고 따가울 때쯤엔 잠깐이라도 햇빛화상을 의심해 빠른 시일 내에 병원을 내원하는 것을 권장한다. 치료는 화상 부위를 소독한 뒤에 소염 진통제와 연고를 처방하게 된다. 치료는 수년간 다양한 화상 케이스를 전문적으로 다룬 병원에서 전문 의료진을 통해 맞춤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수원 세술외과 이하균 원장

## “좌석 다시 붙이고 기내서비스도 제대로”...대한항공 국제선 조기회복 속도

9월 공급량, 50% 이상까지 회복 예정 화물기로 사용됐던 여객기 다시 투입 장기 휴업중이던 직원들 복귀도 준비



대한항공(사진)이 코로나 사태로 대폭 축소했던 국제선의 조기 회복에 속도를 낸다.

우선 7월과 8월 성수기를 맞아 본격적으로 여객노선 공급 증대에 나선다. 6월까지 운영 중인 국제선 좌석은 코로나19 이전의 3분의1 수준이다. 대한항공은 9월 공급량(ASK)을 코로나19 이전 대비 50% 이상까지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연말까지 정상 공급의 50%를 회복하겠다는 기존 계획보다 약 3개월 앞당겼다.

미주지역의 경우 LA, 뉴욕, 워싱턴, 호놀룰루, 밴쿠버 등의 노선 편수를 늘리고 운항했던 라스베이거스는 7월부터 주3회 수준으로 복항한다. 유럽도 파리, 프랑크푸르트, 암스테르담의 편수를 늘리고 운항을 중단했던 밀라노, 비엔나, 바르셀로나, 로마를 7월과 9월에 복항한다. 일본은 삿포로와 오키나와의 운항을 재개하고, 김포-하네다는 29일부터 주2회 운항한다. 그외 동남아 노선과 홍콩, 타이베이, 울란바타르 노선도 증편한다.

또한 급증하는 여객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7월부터 뉴욕노선에 매일, 홍콩노선에 주3회, 그리고 9월부터는 나리타노선에 매일 A380 항공기를 투입할 계획이다.

그동안 화물기로 전용했던 여객기들도 다시 노선에 투입한다. 보잉777기종은 좌석을 떼어냈던 10대 중 3대를 7월부터 순차적으로 다시 좌석을 장착해 여객기로 운항한다. A330기종도 7월 중으로 1대에 다시 좌석을 장착해 운영한다. 현재 장기 주 기하던 약 20대의 항공기들도 언제든지 투입

할 수 있도록 정비에 들어갔다.

각종 기내 서비스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온다. 그동안 5월부터 기내식과 음료, 헤드폰, 담요 등의 기내용품을 단계적으로 정상화시켰는데, 7월부터는 기내 서비스가 전면 회복된다. 기내식 메뉴도 정상화에 맞춰 다양화한다.

대한항공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장기휴업 중이던 직원들의 업무 복귀를 위한 준비도 나섰다. 특히 여객 수요 급증에 대비해 선제적인 인력 확보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운항승무원들은 이미 채용을 진행하고 있으며, 상당수가 휴업 중인 객실승무원의 경우에도 여객 수요 회복 상황에 따라 신규 채용도 고려하고 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 한국방문위, ‘스마트 관광안내시스템’ 본격 가동

AI기반 번역·경로검색 등 서비스

한국방문위원회는 27일부터 비대면 관광 안내 서비스 ‘스마트 관광안내시스템’(사진)을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준비해 온 ‘스마트 관광안내시스템’은 2018년 시범사업

으로 시작했다. 이후 매년 다양한 기능을 추가 개발하며 업그레이드를 했다. 인공지능(AI) 음성인식 기반의 음성검색 및 번역 서비스와 5000여 개의 전국 관광정보 콘텐츠를 활용한 위치 기반 지도, 이동경로 검색, 맞춤형 여행코스 추천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또한 정보통신기술(ICT)을 결합



한 관광서비스를 비롯해 열화상 카메라를 통한 체온 측정, 무료 와이파이, 스마트폰 무선 충전 등의 서비스를 한, 영, 중, 일(중국어 간·번체 포함) 언어로 지원한다.

설치 장소는 공항, 항만, KTX, 공항철도 등 주요 교통접점과 면세점, 리조트, 관광안내소 등 주요 편의시설과 관광지 60개소에 마련했다. 한국방문위원회는 지속적인 이용객 모니터링과 콘텐츠 고도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김재범 기자